

KIA 정보의 힘!... 대어 낚았다

〈한승혁〉

한승혁 ML 진출 지지부진 미리 알고 영입 작전

타구단선 "1차 지명권 날릴수 있다" 사전 포기

KIA가 지난 16일 진행된 2011 신인 드래프트에서 뜻밖의 대어를 낚았다. 롯데와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례없는 희소식이라 선수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KIA는 이날 가장 먼저 덕수고 우완 한승혁을 호명했다. 한승혁의 이름이 나오자 식장은 순간 술렁였다. 한승혁은 151km의 직구를 뿌리며 이번 지명 대상자 중 가장 빠른 볼을 보유한 선수로 꼽힌다.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까지 장착한 한승혁은 일찌감치 스카우트의 눈길을 끌었지만 메이저리그 진출설이 나오면서 이날 행사에 정식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KIA는 1라운드에서 한승혁을 선택했다. 메이저리그 진출로 1차 지명권을 날릴까 우려한 구단들이 선뜻 지목을 하지 못한 틈을 노려 KIA가 8번째로 돌아온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드래프트가 TV로 생중계되면서 한때 한승혁이

미국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승혁은 자신의 이름이 불린 뒤 식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다른 1차 지명자와 함께 지명팀의 유니폼을 입고 소감을 밝혀 논란을 불식시켰다.

허를 찔른 한승혁의 '깜짝지명'에는 KIA의 미국 발 정보가 있었다. KIA 스카우트팀 조찬관 차장은 국내프로야구에서 용병 전문가로 통하는 해외 소식통, 신인 지명을 앞둔 지난해 미국 현지 상황을 파악하던 조 차장은 한승혁의 미국 진출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KIA는 곧바로 드래프트 시나리오 전면 수정에 들어갔다. 한승혁을 잡기로 결정을 내린 KIA는 지명 전날에야 접촉이 나왔다. 한승혁 측도 돈이 아닌 신장 가능성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쪽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KIA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밀하게 움직였



다. 지명이 유력시되는 20명의 선수는 이날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초대를 받아 처음부터 식장을 지켰다. 초대를 받지 못했던 한승혁은 지명 직전까지 근처 커피숍에서 어머니와 대기하고 있었다. 일찍 모습을 드러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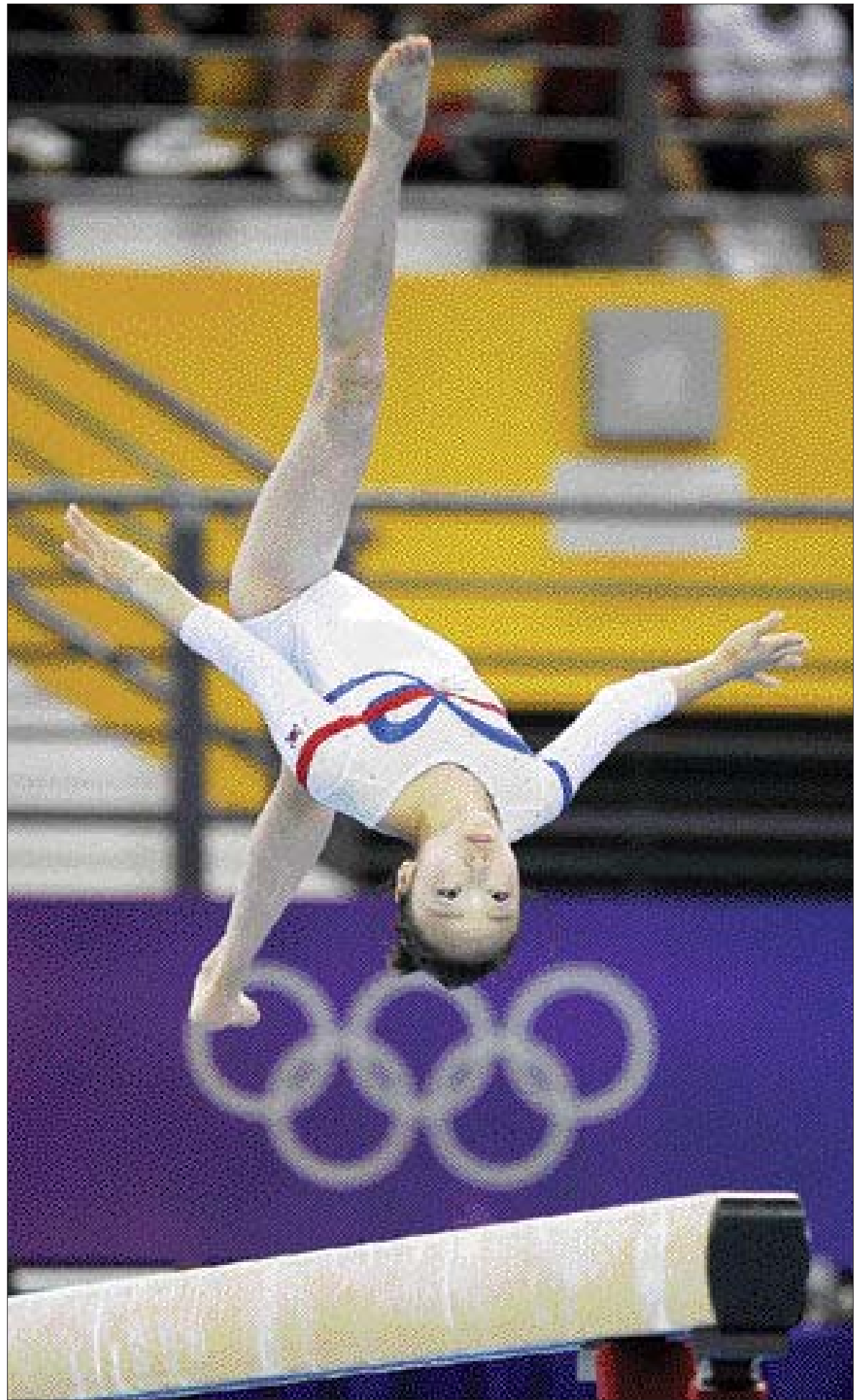
우 주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탓이다.

4라운드에서 뽑은 우병걸(투수·제주산업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다른 예상 후보군이었던 선수들과 달리 팬들에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탓이다.

우병걸은 볼펜의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는 KIA의 야심작이다. 최고 147km의 직구를 보유한 우병걸은 뛰어난 구위와 과감한 승부로 타자들을 압박하며 스카우트의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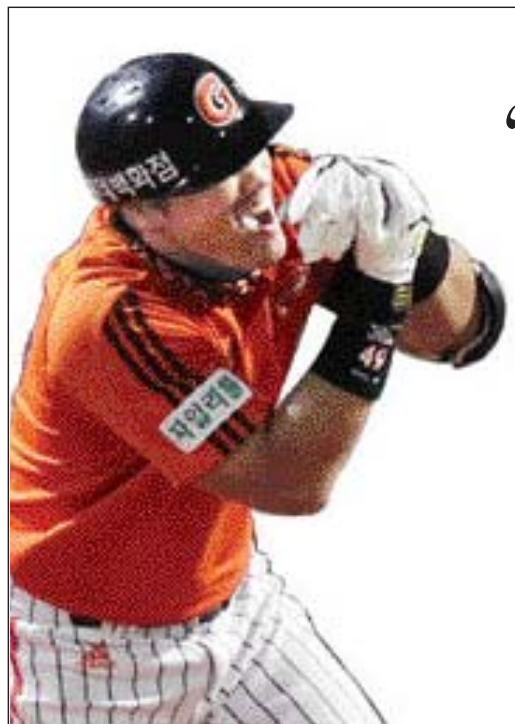
올 시즌 볼펜 난조로 고전했던 KIA 코칭스태프는 우병걸의 투구 영상을 보고 '우병걸 잡기 특명'을 내리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질한 평균대 연기

17일 오전 싱가포르 비산스포츠포럼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올림픽 기예 체조 여자 개인 예선에서 한국 박경진이 평균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포' 빠진 롯데 4강싸움 어떡하나

홍성흔-이대호-가르시아

핵탄 실패 트리오 와해 위기

113개를 쓸어담은 홍성흔이 왼손을 다치면서 정규리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간 4강권 경쟁의 원동력이었던 핵탄이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홍성흔-이대호-가르시아로 이어지는 클린업트리오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상대 마운드의 경계대상 1호인 이대호가 더 집중적인 견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볼펜 투수진이 불안해 6~7점씩 대량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패하는 때가 잦은 롯데로서는 '차(車)'를 떼고 KIA와 4강 경쟁을 벌이게 된 셈이다.

17일 롯데 구단에 따르면 홍성흔의 공백을 메울 타자로는 정보명(30)과 손아섭(22)이 거론되

고 있지만 홍성흔의 팀 기여도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영태 롯데 수석코치는 "다른 새로운 선수가 없으니 이 없이 잇몸으로 싸워야 한다"며 "코치진 회의를 통해 공백을 메울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흔은 지난 15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서 윤석민(24)이 던진 공에 왼 손등을 맞아 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입어 이번 시즌을 접게 됐다.

윤석민은 경기 후 홍성흔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던질 때 힘이 많이 들어가 그랬다"며 사과했고, 홍성흔은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경기를 해라"며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흔은 주변에서 빈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빈발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고교야구 왕중왕 가린다

무등기 우승팀 등 8개팀 출전

대한야구협회는 17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KBS-대한야구협회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을 오는 9월4~5일과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고교야구 최강전은 내년부터 고교야구에 주말리그제가 도입되는 것을 기념해 열리며, 무등기 등 올해 8개 전국대회 우승팀을 초청해 8강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대한야구협회는 이밖에 베이스볼아카데미를 유료화한 지도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한편 프로야구와 별도로 야구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국가대표 12명 선발

전주원·이경은 등 제외

오는 9월23일부터 체코에서 열리는 제16회 세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12명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농구협회는 15명의 예비엔트리에서 전주원(신한은행)과 이경은(kdb생명), 양지희(우리은행)를 뺀 총 12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브라질, 스페인, 말리와 함께 C조에 편성된 한국 대표팀은 지난 15일부

터 태릉선수촌에서 강화 훈련 중이다.

◇여자농구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감독 = 임달식(신한은행) ▲코치 = 이호근(삼성생명) ▲가드 = 김지윤(신세계) 이미선(삼성생명) 임영희(우리은행) ▲포워드 = 김단비(신한은행) 김보미(kdb생명) 박정은(삼성생명) 변연하(KB국민은행) ▲센터 = 강영숙 정선민(이상 신한은행) 김계령(신세계) 신정자(kdb생명) 정선화(KB국민은행) /연합뉴스

전남도지사배 U-15국제 축구대회

26~30일 강진종합운동장

제5회 한국중등(U-15)축구연맹회 장배 겸 전라남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전남 강진종합운동장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에서 열린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한국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고 강진군과 한국중등축구연맹이 주관하며, 강진군체육회, ㈜아디다스코리아, ㈜싸카스포츠 등이 후원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정

소년 축구대회에는 한국 대표로 청룡, 백호를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호주, 일본, 포르투갈 등 7개국 8개 팀 15세 이하 청소년 축구선수 200여명이 참가한다. 오는 26일 한국 청룡팀과 스페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를 거치는 등 모두 20경기를 벌인다.

26일 한국 청룡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FC의 경기와 27일 한국 백호팀과 포르투갈 벤페리카의 경기는 MBC-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경남 FC와 맞대결

진주서 K-리그 18라운드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진주를 찾아 경남 FC와 맞대결을 벌인다.

전남이 21일 오후 7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2010 K-리그 경남과의 18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는 경남의 홈그라운드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9회 전국체육대회(10월6일~12일) 주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진주종합경기장 준공을 기념해 개최 장소가 변경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KBS-대한야구협회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
2010.9.4~5일과 11일 개최

2010.9.4~5일과 11일 개최
KBS-대한야구협회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
2010.9.4~5일과 11일 개최